

## SGI 대환상품도 7월 중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(한국경제, 5.8) >

◆ “우린 대출 안된대요”... 피해자 두 번 울린 전세사기 대책

- SGI 보증가입자는 대환대출 거절
- 정부대책 요건 까다로운 탓에 피해자들 눈덩이 이자 비명

□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음에도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**대환대출을 출시('23.4.24)**하였습니다.

○ 우선 가입자가 많고 준비가 완료된 주택금융공사(HF)의 보증부 대환 상품부터 조기에 출시 하였으며(당초 5월 예정 → 4.24일 출시),

- 서울보증(SGI) 보증부 대환상품은 특성상\* 개발에 추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.

\* **SGI의 대환 상품**은 신용보험으로 HF 보증과는 성격이 상이하여 개발에 추가 시일 소요

○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SGI 보증부 대환 상품도 7월 중 출시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.

○ 또한, 기사에서 언급된 ‘보증금의 5%’는 신규 전셋집에 대한 계약금으로 모든 기금상품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며,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대환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‘저리 대출’과 ‘대환 대출’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주택토지실	책임자	과 장	정진훈 (044-201-3337)
	주택기금과	담당자	사무관	백두진 (044-201-3339)
우리은행 주택기금부 SGI 서울보증보험 개인고객부	책임자	부 장	오수용 (02-2002-3533)	
	담당자	계 장	이한빈 (02-2002-5374)	
	책임자	부 장	허석용 (02-3671-7791)	
	담당자	팀 장	조민기 (02-3671-7788)	